

## 이라크 내란 사태 분석과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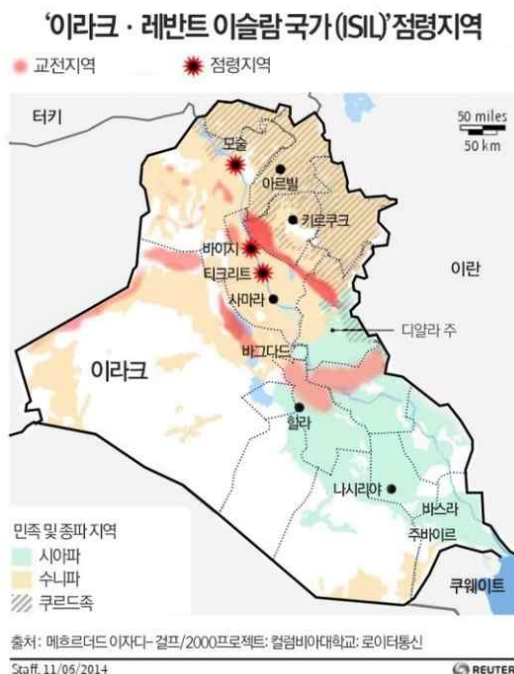
### 1. 이라크 정부군과 반군간 교전 진행 상황

#### □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ISIL)이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 장악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IL은 지난 1월 안바르 주의 팔루자 전체와 라마디 일부를 장악하고, 이후 이라크 군경과 교전을 반복한 끝에 6월 10일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을 장악하였으며, 6월 11일 티크리트까지 점령하여 안바르·니네바·살라헤딘 등 3개 주(전 국토의 20%)를 사실상 장악함.

#### □ ISIL, 바그다드로 진격 중이나 정부군의 반격 강화로 대치 중

- ISIL은 현재 수도인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 중이나 수도를 사수하려는 정부군의 반격이 강화되면서 대치 중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내전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출범한 이슬람 수니파 테러조직으로, 현재 약 12,000명의 전투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에 거점을 둔 알카에다 계열의 이슬람 과격 조직들인 ISIS(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와 ISI(이라크 이슬람 국가), 시리아의 반체제 이슬람 세력인 '알-누스라 전선'이 통합하여 결성된 것으로 알려짐.
- 이라크와 레반트에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의해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음.
  - \* 레반트(Levant) : 시리아를 중심으로 레바논과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 지중해 동부 연안의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지명

## 2. 사태 발생의 배경

### □ 이라크 시아파 정부의 수니파 탄압이 분열과 갈등 초래

- 미군 철수(2011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지난 4월 30일)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알-말리키 現총리(2006년 집권)는 수니파 정치인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등 수니파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공세적인 분파주의 정책으로 국가적 분열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으로 원래 다수파인 시아파(국민의 약 64%)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시아파 정부가 수니파를 권력에서 소외시키면서 수니파와 시아파간의 갈등이 악화됨.
  - 실제로 ISIL이 장악한 안바르 주와 니네바 주는 모두 수니파 밀집 지역으로 ISIL을 지지하는 주민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 ISIL이 시리아 내전의 장기화와 타 반군과의 관계 악화로 이라크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

- ISIL은 시리아 내전에서 시아파 정권을 축출하려는 반군 진영(미국이 지원)으로 참전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왔으나, 시리아 내전의 상황이 지지부진해지고 타 반군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라크로 진출하게 되었음.

- 한편, ISIL은 시리아 내전에의 참전을 계기로 지난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수니파 국가들로부터 비공식적 재정지원을 받았음. 수니파 국가들은 시아파의 세력 확장을 막고자 반군 세력을 암암리에 지원하여 사태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3. 향후 전망

#### □ 정부군의 반격 강화로 대치국면의 장기화 가능성

- ISIL이 점령한 지역이 대부분 수니파 밀집지역으로 저항이 크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ISIL과 정부군이 바그다드 북쪽에서 전선을 형성한 채 장기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지의 대체적인 관측임.
- 미국은 지상군 파병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나, 지상군 투입 없이는 반군세력의 소탕이 불가함.
- 시아파의 맹주로써 이라크 시아파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해온 이란은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혁명수비대 병력을 파병하고 있음.

#### □ 최악의 경우 북·서·남부의 3개 지역으로 분열 가능

- 사태가 내전으로 악화되어 장기화될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이라크가 북부의 쿠르드자치정부(KRG), 서부의 수니파, 바그다드와 남부의 시아파로 분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KRG 군대(페쉬메르가)는 중앙정부와 관할권을 놓고 다투어온 유전 지대인 키르쿠크 지역을 장악하였음. KRG 군대는 이라크 최대의 정유시설이 위치한 안바르 주 바이즈에서도 정부군을 도와 ISIL을 격퇴한 바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